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3:9-20(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9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10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16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17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18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본문은 우리 모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9절)

→ \_\_\_\_\_

-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11-18절)

→ \_\_\_\_\_

-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19-20절)

→ \_\_\_\_\_

-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_\_\_\_\_

- 내 힘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나눠봅시다.

→ \_\_\_\_\_

- 바울은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긴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태도나 적용할 삶의 모습은 무엇 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3:9-20 (의인은 하나도 없다)

바울은 구약 말씀을 펼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에 물들어 있으며, 의인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으며, 사람을 속이고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 마다 죄의 흔적을 남겨 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사람은 커녕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측정 기준은 착한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율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겸손과 두려움, 낙심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위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므로, 이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진리에 대적하는 죄의 실상보다는 근사하게 들리는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듭 다짐해 보지만 내 다짐과 결단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실 된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리와 함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빌 1:6) 아멘!

## 6. 기도